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 고후 1:15-22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되는데 문제는 성경대로 안사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면 자꾸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체질 때문이다. 창세기 3장 체질, 원죄 체질이다. 이것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 대부분 사람들은 없다고 믿고, 믿는 사람들은 자꾸 속는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이다. 오늘 이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나온다. 우리 인생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간단하다. 기본 원리를 알고 나면 누구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응답도 받을 수 있다. 내가 믿은 그것 가지고 응답 받는다. 믿는 그 내용을 고백하고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응답이 나타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증거가 나타난다. 이것을 지속하고 있으면 계속 증거가 나타난다. 시간표를 따라서 계속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안 따라가려고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란다. 나도 모르게.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누구든지 따라가는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원리로 산다고 해서 죽는다거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로 살면 누구든지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정복할 수 있다. 미리 답을 누리고 미래를 기다릴 수도 있다. 우리 주위에는 특별한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들도 있다. 때로는 살인을 하거나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영적 문제는 대부분 이 원리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이다. 지금이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 치유하신다. 체질이 각인되기 때문에 시간이 거릴 수는 있다. 참아야 되고 전쟁해야 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반드시 치유되고 정복한다.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우리를 모든 문제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준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한다.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는 아니라고 부인해야 진짜 기도가 된다. 오늘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 확인하고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1.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것은 안될 것 같애, 될만한 것을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다. 19절을 보면 우리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다는 것이다. 아니라, No가 없다.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 당연하다. 아무것도 막지 못하고 반드시 되어진다. 그는 뜻이 일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바꾸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항상 영원히 예만 있다. 항상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한 개도 없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무조건 승리한다. 반드시 정복하고 다 이루신다. 안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시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은 절대적이다. 안되는 일이 없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 없다. 그대로 된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너무나 뻔하다. 그리로만 가면 된다. 20절에 좀더 상세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눈 열려서 깨달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되는 일은 없고, 그것은 우리를 고쳐서 더 축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인간의 표본이다. 얼마든지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다. 말씀 떨어지면 그렇게 아멘하고 영광 돌리면 끝이다. 왜냐? 반드시 되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리고 따라가라는 것이다. 다른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무조건 저주에서 해방이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약속 그 자체가 그렇다. 약속 없는데 내가 기도를 잘하면 뭐하나? 내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약속이지 나의 노력이 아니

다. 이렇게 되는 조건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을 어떤 신학자들은 In Christ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의 서신 중에서 최고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에베소서 1장이다. 그런데 읽어보면 수시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온다. 오늘도 또 나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인생과 세상을 능히 정복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잘하는 어떤 축복을 받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그냥 축복이 아니다. 보좌의 축복이다. 땅끝까지만 살리는게 아니라 우주를 살린다. 그냥 귀신 하나 내쫓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세계이다. 이것을 누리야 하고 여기까지 가야 한다. 눈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눈이 여기까지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당연히 모든 것이 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참 놀라운 사람이다. 전에는 많이 읽었어도 몰랐다. 이런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의 영적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정도가 아니다. 얼마든지 무조건 전부 다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영적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본문중에 하나 더 있다. 17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을 계획할때에 결코 경솔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내가 예라고 말한 이후에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겠냐는 것이다. 옛날같으면 우리가 예라고 한다음에 아니라고 하면 안된다고 율법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이상한 상상을 가진 이단들은 이것으로 성경에 이렇게 말한다고 속인다. 옛날에 우리도 거의 이런 수준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 보면 감동 정도가 아니라 탄복을 할 정도이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만큼 응답 중심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 주시면 그것을 예라고 한 후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냐는 것이다. 응답 받고 말했다는 것이다. 움직이기 전에 응답부터 받는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경솔하게, 육체를 따라 결정하겠냐는 것이다. 이 중대한 일에 내가 하나님 응답 안 받고 하겠냐는 것이다. 내게는 그런 일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라고 말한 후에 아니라고 말하는 일은 내게는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변함 없는 하나님의 뜻이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행할 것이니까, 내가 예라고 어떤 상황이 와도 No라고 안한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하는 한 내 입에서 No라는 소리는 없을것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나는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일이다. 기도하고 응답오지 않으면 교회 방문하는 것도 내 맘대로 안한다는 것이다. 진짜 종의 모습이다. 어느 교회든 가서 복음 이야기 하면 사람들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그렇게 안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메시지 중에 많이 듣는 말이다. 비슷한, 포인트가 같은 말이 있다. 언약을 누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도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때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패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산 바울이 고백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안살면 얼마든지라는 단어를 못 쓴다. 참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데 왜 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감동이 없었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열 번은 읽었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의 형태를 전혀 읽어내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지나갔다.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적인 진도가 안나간다. 그래서 눈이 안 열리니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는 것이다. 알고 있어도 언약이 안열리면 진도 안 나간다. 메시지를 20-30년 들어도 영적 진도가 전혀 안나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읽어도 보아도, 아무런 뜻을 감지해 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으니 영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훈련을 받은 단어들이 함께 일해야 한다. 훈련속에 받은 단어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이다. 언약을 누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도전한다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다. 첫째는 그의 믿음. 얼마든지. 두 번째는 그의 자세, 응답 받고 움직인다. 성경에는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모세도 그랬을 것이고 요셉도 다윗도 그랬을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지을때도 있었지만 이런 삶의 기초는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과 세계를 가진 기도의 삶이 있기를 바란다.

2.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같은 영적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응답이 와야 움직이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그래서 내 인생이 100% 성공이고 실패는 없는 인생 살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내게 누군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진짜로 내게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다. 응답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바울의 인생,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먼저는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을 나의 삶속에서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고백하고 언약으로 잡고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이 응답과 역사를 보아야 눈이 열린다. 안 그러면 얼마든지가 아니라 되네..라는 정도도 안된다. 지속이 되어지면 어느날 하나님의 약속은 한계가 없는 얼마든지라는 것이 되게 된다. 그냥 응답을 계속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 응답 받으라고.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다. 누구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본래 그렇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 약속의 피이다. 왜 안되냐? 이렇게 안 살아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사냐? 내 힘으로 산다. 믿기는 믿는다. 그런데 사는것도 이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기는 그렇게 믿고 살기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평생 가도 변화가 없는 것이다. 고쳐야 한다. 우리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서 고생만 죽도록 하는 것이다. 다 아는 사실이다. 모든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다.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약속되어 있다. 모든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 땅끝까지의 일을 위하여 약속되어 있다. 여러말 할거 없고 3직 통하여 그리스도를 확실히 누리면 된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딱 세 개 요약해서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이다. 신자에게만 근본이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근본이다. 나중에 그들이 심판 받을 때 이 세가지 때문에 지옥간다. 이 세가지를 믿지 않아서 영원히 지옥에 간다. 우리가 이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확실히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루의 시작을 여기서 해야 한다. 그리고 강단과 각종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받아야 한다. 기도하면 말씀 주신다.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은혜받는다. 그런데 나가면 잊어버린다. 기도하면 나기도 잊어버리지 않을 말씀을 심어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는 꼭 준비되어 있는데, 니가 기도도 해야 할 것이다. 기도 안하면 남는게 없다. 기도하면 평생갈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 뱀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다. 호지부지 사는게 아니라 정복하면서 살아야 한다. 언약을 잡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밭아 버려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강단과 각종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번도 참 귀한 세상이 되었다. 바깥에 나가면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경험상, 그렇게 해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정복

하는 삶은 안된다. 아마 절대 안될 것이다. 물론 예외 없다는 소리는 못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절대 안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 체질이 약하다. 아주 세상이다. 속에 숨어 있던 것이 조그만게 올라와서 어느날 은혜를 정복해버리는 것이다. 훈련에 신경 쓰는 이유는 응답 받으려는 것이다. 분명 성경이 말하는 응답 받는 길과 반대 아닌가? 그래도 계속 그걸 하고 있다. 이것이 타락이고 저주이다. 믿는데 계속 저주 비슷한 인생을 산다. 완전 저주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도 바울을 보라. 얼마든지라고 했다. 내 경험에는 안되는 것은 없다. 그것이 얼마든지이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되면 간다고. 이 두가지로 끝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내가 예배드릴 때 들어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 인도 받으면 응답이 오는 것이다.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뭘해야 하는지 확실하다. 듣고 끝내버리면 없는 것이다. 믿으라, 기도하라. 전하라는 것이다. 해라, 내가 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하시기 바란다. 잊어버리면 안된다.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 것이다. 이러한 중에 우리가 렘넌트 7명처럼 그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 눈이 열린다. 말씀이 들어오면 은혜가 된다. 언약이 되고 힘이 되어 확신이 생긴다. 그러면 눈이 열린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 뿐이다. 이것이 세상 정복하고 모든 응답이 다 들어 있다. 그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걸 안하고 응답만 받으려고 하면 진도 안 나간다.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얼마든지 된다.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내 맘대로 안한다. 그러니 내가 예라고 했을때에는 응답이 왔을 때 말이야. 그런데 내가 왜 아니라고 하겠냐는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 왜 성경에 써 놨을까? 너도 이렇게 되라는 것 아니겠는가? 결심하라. 복음을 우리가 몇 년 들었냐? 죽을 때까지 지리멸렬하며 살아야겠는가? 결심하고 뒤집어야 한다. 북미주 산업인대회를 하는데, 이것을 터닝포인트, 경제, 사단 경제 박살나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라, 응답하겠다는 것이다. 한나같은 평범한 여자가 그 시대의 대표적 인물이 된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과 통한 것이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통할 제목이 많이 있다. 영적 문제, 복음이 없는 것, 교회가 죽는 것, 렘넌트들이 헤매고, 귀신문화들, 여기에 대한 답, 부활메시지 4개, 237, 치유, 서밋, 들어왔는가? 들어오면 응답되는 것이다. 라합이 기생인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에 눈이 열리자 다윗왕의 4대조 할머니가 되었다. 인생 역전이다. 이것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답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원. 기도 안에서 완벽한 그의 인도, 답 만나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렘넌트들 나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 하지 말아라. 시대는 빠르다. 빛의 속도로 간다. 생각이 속도를 내야 한다. 바쁘게 아니라 움직임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정복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정복을 통해 수많은 사람 살리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를 이어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의 가문되게 하시는 것이다. 놀라운 인생이다. 이 출발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개인 시간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된다는 약속에 우리도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한계도 없고 변함도 없다. 이 놀라운 일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것이 언약되어 깊이 그리스도를 누리기 바란다. 삼직을 언약으로 잡고 고백하면서 전쟁을 붙는 것이다. 내 경제 뒤에 역사하는 사단과 전쟁하는 것이다. 내 영적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 뱀의 머리를 이 삼직으로 깨는 것이다. 이것을 누리는 24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